

# 관상조류사육각론

방            예            식

〈한국 관상조류 연구원장〉

## 8. 화계(火鷄)(Fared pheasant)

원산지는 중국의 동북부에 있는 산악지대의 산림에 살고 있는 평의일종으로 잘 번식되는 편이나 우리나라에는 희귀한 종류이다. 볼의 뒤편으로 향하여 백색의 피꿀의 깃털이 뺏고있음으로 “귀평”이라고도한다. 머리위는 검고 짧은 깃털이 있고 그 아래 목까지는 검은색으로 광택이 있다. 그 이하는 점점 갈색으로되고 깃은 완전히 갈색이 된다. 등의 하부와 허리와 상미동(上尾)은 흰색이고 턱과 목 그리고 긴깃털은 회다. 가슴은 암갈색으로 점점 넓어지고 하복부에서 하미동(下尾)은 갈색뎌 백색이다. 꼬리 밑부분은 백색이고 끝부분은 자남색의 광택있는 암갈색이며 부리는 홍색을 띤 갈색 개안부(開眼部)는 붉고, 다리는 홍색이다. 암과 수는 같은 깃털이고, 평과로서는 진귀한 편이어서 조종의 수가 그리 많지않고 값도 비교적 비싼편이다.

## 9. 당산조(唐山鳥)(Elliot Pheasant)

원산지는 중국남부의 깊은 밀림지대이다. 수컷은 머리위는 회색 옆목은 흰색 그리고 목출기는 검은 색이지만 뒷목출기는 옅은 회색의 금속광택 빛이다. 등과 가슴은 아름다운 등갈색이며 검은 줄이 들어있다. 아랫배는 순백색이며 허리와 꼬리의 덧깃은 검은색에 흰띠

가 둘러져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름답다. 꼬리는 회백색에 다색의 굵고 넓은 줄무늬가 산재되어 있다. 다리는 튼튼하여 회백색이며 머느리 발톱은 날카롭게 발달되어 있고 눈주위의 나출부는 적색이다 본종의 결점은 대단히 겁쟁이면서 신경질적인 새에다 인공적으로 부화육추한 새끼라도 여간해서 길들여 지지않는다. 그리고 번식기가 끝난 평상시에도 수컷이 암컷을 쫓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니 암 수를 각각 분리하여 사육하는 것이좋다 평상시에 모이를 충분히 주고 환경을 좋게하여 정식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는 것이 좋다. 본종은 우리나라에 흔치않은 고급종이다.

## 10. 공작비둘기(Fantail)

처음에는 인도에서 고정(固定)되어 개량이 가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사육된 지 오래다. 원종의 와구(瓦鳩)등은 꼬리가 12매이지만 이 품종은 20~30매가 있어 그 꼬리를 공작과 같은 부채꼴(扇狀)로 퍼고 머리를 뒤로 재치기 때문에 그 자태는 매우 아름답다. 이 품종에도 색변(色變)이 있어서 백색 황색 적색 흑색 이인(二引) 안과(鞍掛)형으로 구분된다. 보통 사육되고 있는 것은 백색형으로서 이것은 전신이 순백색으로 부리와 다리만이 살색(肉色)을 띠고있다. 비교적 건강한 새로 조식(粗食)도 견디어 내기때문에 금사에 반사하면 잘 번식된다 관상용의 비둘기중에는 일반

적으로 잘눈에 쫓는다. 그러나 번식에는 사료 관리를 잘해야 작 맞는 한쌍의 새끼를 얻게 되는것이다.

### 11. 자꼬빙 (Jacobin)

원종은 인도 세이론 비루마와 중국남부의 해남도(海南島)에 분포한 와구(瓦鳩)에서 (Columbaliria)에서 개량에 의하여 작출된 가끔종으로 영국에서 품종으로 고정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관상용으로 널리 사육되고 있다. 이종류에는 적색형 백색형 황색형 이인형 녹색형이 있는데 적색형이 많은 것 같다. 어떤 종류건간에 체형은 목이 앞쪽이 직립(直立)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고 목은 목돌이 형태의 깃털(羽主)이 있어 매우 아름답다. 좋은새는 이 우모가 자라 부리만 보일정도로 되어 있다. 성질은 온순하고 조식(粗食)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사육하기가 편리하다 체형은 약간크기 때문에 좁은 상자에 치기는 힘들고 금사에 반사하는 것이 좋다. 종류중에 이인형은 적고 흑색형도 그리 아름답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색과 백색이 사육된다.

### 12. 뿔닭 (호로호로조) (Domestic guinea fowl)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서부이다. 본종은 삼형색(三形色)이 있으며 진주색이 원종이고 다음에 짙은 청색형과 백색형의 언위작출형이다. 어느 종류이든 현재는 관상용으로 동물원같은데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 원산지나 개척지 같은데서 가끔 농가의 부업으로는 경작지의 해충을 구제하는데 이용되어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머리위에는 각질부(角質部)가 있고 부리의 밑에는 살 수염이 뿔뿔이 토출되어 있다. 얼굴과 윗목에 잘려 나출부는 청색을 띤 백색이다. 목은 폭이 넓은 회색의 부분이 있어 이것이 윗 가슴부까지 달하고 있다. 그외의 전신은 둥근무늬가 두수히 밀생되

어있다. 부리는 길은 빨색이며 끝은 엷다. 암수가 같은 색깔이라 감별이 어려운 색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에서 가슴부까지 넓게 자리잡고 있는 회색을 직사광선에서 보면 금속광택의 청빛이 울러 퍼지는 것이 수컷이다. 본종은 대단히 활동적인 새이며 번식도 대단히 쉽고 산란율도 좋다. 환경에 잘순화 됨으로 금사의 환경이나 기후에 별 구애없이 쉽게 사육할수가 있다.

### 13. 한국꿩 (高唐雉) (Korean Ring-neckes Pheasant)

한국의 전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년충서식하는 텃새이다 본종의 혈통은 널리 유아시아에 걸쳐 대륙계에 분포되고 있으나 각 지방마다 지방적인 변이(變異)를 하여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종류도 있다. 본종은 대륙계의 꿩종류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아름다운것임으로 일찌기 미국, 대만, 일본 영국같은 나라에서 수입하여 인위적인 사육과 방사하여 왔음으로 그곳에도 분포되어 있다. 수컷의 색깔과 형태가 선명하고 깨끗하여 대단히 아름다우면서도 비상력이 강하여 남성적이며 특히 그 울음소리는 그 어느 꿩류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웅맹과 기백이 넘쳐흐른다. 그뿐 아니라 적당히 배열된 목부분의 흰테는 단일민족의 의지와 순박함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고유의 의상색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응력(感應力)이 신조에 가까와 어떠한 큰변이 일어나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큰소리로 운다고 한다. 본종의 아름다운 광택깃털의 화려한 조화미와 색소미는 찬란하고 다양한 아름다운 무늬이며 남성적인 자태의 새인지라 이조 500년동안 왕후의 결혼식에 수꿩의 무늬를 수놓아 대사의 길(吉)을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예나 지금이나 길사(吉事)에는 꿩의 무늬를 수놓거나 깃털 생포 그의 꿩풍의 그림등으로 미루워 보아도 우리민족의 깊은 얼을 대표하는 새이다. 본종의 눈주위와

나출부에 선명한 붉은 피부와 머리양쪽에 깃빨 모양으로서는 깃털은 발정기가 되면 암컷을 유혹하려고 교태를 부리는 자태의 멋은 참으로 장관이다. 평상시는 붉은 피부가 적당히 되어 있으나 번식기가 가까워오면 1-2cm 정도 커져서 위로켜쳐 오른듯 확장되어 좌우외피부가 결합한 모습은 무사의 투구를 장식하는 것 같고 흑장미의 발랄한 자태를 연상하는 듯 하여 용기넘친 미남같다. 또 머리양쪽의 깃털은 정열이 넘쳐 흐르는 눈매와 함께 성난 무사처럼 힘있어 보이는 조화의 생동이란 이 조류의 특징이요 자랑이며 조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요 취미라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다. 푸른색갈의 머리위 목 중앙부의 넓은 흰테 그리고 그 윗부분의 아름다운 남녹색이나 그 밑부분의 금속적인 황색이 낀 적자색은 마냥 아름답기만 하다. 황색의 등부분에 흑색의 중무늬가 있고, 가슴과 배는 홍색의 금속광택이 있는 등황갈색이다 배의 양쪽은 등황색이며 가슴양쪽은 아름다운 녹색이 질게 울려퍼지고 있는 검은무늬의 띠가 있다. 광택이 있는 강한 회녹색의 처리 부분의 밑으로 엷은 회녹색이 있고 28-32개의 검은 마디가 있는 꼬리의 중앙은 오리 보색이 감도는 푸른황색이며 양쪽에는 자홍색이 광택이 있다.

#### 14. 흰평 (White Pheasant)

본종은 유럽산평에서 돌연변이 한 것을 고정된 품종이라 생각한다. 그의 한국평 일본평 기타평에서 가끔 흰색의 의변을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은 고정된 혈통이 아니므로 다음 후손은 흰변이종(白變異種)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 국내에서는 많이 사육하고 있다. 암수 모두가 동일한 색깔로서 순백색의 깃털을 하고 있으며 눈주위의 나출부는 짙은 적색이며 수컷은 큰편이다. 특히 발정기가 되면 붉은 농도가 짙어지며 수컷은 이 부분이 피부가 한국평과 같이 확장되어 대단히 아름답다. 체격은 한국평보다 약간 작으면서 성질은 대단히 순하다. 부리는 빨색이며 다리는 연분홍

빛이 낀 남회색이다. 본종의 특징은 전신이 눈과 같이 회고 얼굴이 붉고 체격이 작으면서 성질이 온순하다. 대개 평종류의 탁한 농도의 다양한 색채를 밝은 색으로 변화한 병이론이라 체격이 다소 작으며 오랜 세월을 걸쳐 근친교배를 시켜왔기 때문에 약한종의 하나이고 활동력도 적은편이다. 그러나 번식력은 좋다.

#### 15. 일본평 (Green Pheasant)

본종은 일본의 북해도를 제외한 아오모리(靑森)에서 규슈(九州)와 남쪽을 걸쳐 야쿠섬 타세가섬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약간의 색채로 달리하고 있는 4 아종(亞種)이 있다. ①북쪽평(北雉) 본토의 북부와 동북부에 분포되어 있고 ②일본평 본토의 중부에서 서부에 걸쳐있고 ③시미평 본토의 남부의 연안 일대 ④규슈평 본토의 고리마열도마 분포되어 있다. 본종은 일본의 국조로서 텃새이며 한정된 지역에 있다. 본종은 한국평과 형태나 습성이 거의 비슷하나 체형 및 깃털색은 한국평보다 저조하며 전신이 색채가 초록빛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성의하다. 수컷의 머리목 가슴 배는 흑녹색이며 특히 머리에서 목부분에 걸쳐 남색의 아름다운 광택이 있다. 이 부분의 남색이 없었더라면 전신의 색채가 대단히 흐려져 아주 추한색의 하나가 되었으리라 본다. 뒷머리의 양쪽에는 한국평과 같은 깃모양의 흑녹색의 깃털이 있으며 눈주위의 나출부에도 선명한 적색의 아름다운 피부가 있다. 등은 녹색이며 어깨깃은 갈색의 테가 있다. 암갈색의 날개에 황백색의 반점이 있다. 허리는 짙은 녹색이며 그 이하는 얼룩진 회녹색이다. 꼬리는 흑색이 마디와 그곳에 회홍자색의 띠가 있다. 일본에서 수렵조로서 큰형이며 연간 30만수 이상 수렵인에 의해 죽는다. 그 고기맛은 한국평과 비슷하게 훌륭하다 항간에는 소수 사육하고 있으나 그 인기는 별로 얻지 못하고 있다.

## 16. 긴꼬리꿩 Reevers's Pheasant

원산지는 중국하남성(河南省)의 서부 호북성의 서부와 강서성의 산림속에 서식하는 새이다. 야생시에는 표고 300~2,000m의 높은 곳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비상력(飛翔力)이 강하며 대단히 빠른속도로 100m 이상을 단숨에 나른다. 또 위험이 갑자기 닥치면 깃색을 이용한 은익술의 명수인고로 낙엽 잡초등에 숨어서 외적이 몸에 부딪치지 않는 한 도망치지 않는 새이다. 본종의 특징은 평종류중에서 제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긴꼬리꿩이라 부른다. 꼬리의 길이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140~210cm정도이며 평균 135cm이다. 꼬리가 대단히 길고 몸털도 아름다우며 긴꼬리의 보호를 위하여 그 행동도 대단히 차분한 느낌을 주는 고상한 새이다. 수컷은 머리위 둥근형의 흰 부분과 턱밑 그리고 목부분의 붉은 흰 복도리는 우아스러운 얼굴과 조화를 이루워 순박하고 건강한 농부의 인상을 느끼게 하는 새이다.

## 17. 스미레꿩 English Pheasant

이종류는 영국꿩과 일본꿩이 교잡에 의해서 생긴 것이 고정되어 한개의 품종이 된 것이지만 영국꿩의 특징이 되어 있음으로 그의 학명을(Phasianus Colchicus)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컷은 두부가 짙은 암녹색을 하고 있고 약간 흑색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다. 목은 영국꿩과 같이 흰색링이 없다. 몸은 일본꿩에 가까우나 자색에 광택이 없고 영국꿩의 깃털처럼 녹색이 강하다. 등깃도 연피색(軟皮色)으로 영국꿩과 같고 또한 꼬리도 잘 닳아있다. 이새는 엽조(獵鳥)로서 좋아서 영국을 위시해서 미국에서도 번식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조가 수입되어 가끔 번식되어 왔다.

## 18. 당 닭 (唐鷄)

당닭은 중국의 남쪽과 사무의 중앙 그리고 안남(安南)등지 이다. 현재도 방콕의 근처는 당닭의 선조 비슷한 학(鶴)으로 방콕계라고 이름지워진 것이 있다. 당닭을 일명 자(一보) 또는 왜계(倭鷄)라 칭한다. 자보란 이름은 안남국을 일어도 “짱하”라고 불리운데서 모방되어 연유된 것 같다. 그리고 “왜계”라고 하는 명칭도 넓은 의미로서 왜소(倭小)한 닭이란 뜻이다. 원종은 오늘날의 당닭과 조금다른 형태로서 보통닭과 비슷하면서 작고 다리도 대단히 짧은 것이다. 오늘날의 당닭은 꼬리가 직립되어 있으나 처음은 보통닭과 같이 둥근형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또 깃털은 일반적으로 갈색이었으나 백색과 흑색은 이후에 나온 것이다. 당닭에서 특히 중히 여겨지는 것은 형태가 적고 다리가 극히 작으며 꼬리는 비교적 크고 직립한 것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살뿔(肉冠)은 홀뿔(單冠)으로 되어 있으며 중형보다 좀 큰 형태로서 5개의 톱이빨이 있다. 얼굴은 둥글며 살뿔과 살수염은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 온화한 인상을 풍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은 짧고 짧으면서 깃털이 풍부하여 활모양으로 뒤로 꾸부러져야 한다. 키는 작고 거기에 비해서 폭은 넓다. 그리고 선우깃은 풍부하고 비교적 길며 날개위에까지 적당히 덮여있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 존중된다. 전체적으로 체형이나 태도가 조잡한 것은 품위가 없다. 즉 살뿔(肉冠)과 얼굴 그리고 살수염의 관계 여하에 의하여 정해지는 까닭이다. 꼬리 깃털은 한둘의 예외는 있으나 잘 발달한 것 그리고 직립하고 긴것 또 날개깃이 많을 수록 아름답게 보인다. 꼬리깃이 직립한 것은 당닭의 생명이며 어떠한 종류라도 당닭이 의는 없다. 가슴은 잘 발달되어 둥글며 앞으로 특되어 나온것이 존중된다. 날개는 크고 그부분이 땅에 끌리는 정도는 당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다. 발목은 짧으면서 8~10문 내외로 굵지 않으면 아니된다. 당닭의 이상적인 체형은 앞에 말한바와 같으며 또 닭뿔이 큰편이 훨씬 존중되고 있다.